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4. 17.(화) /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항행시설과	담 당 자	• 과장 허경재, 서기관 박세필, 주무관 김은경 • ☎ (044) 201-4356, 4357, 4362
보 도 일 시		2018년 4월 1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17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한국의 우수한 공항·항공정책... '중남미'에 전파 17일부터 파라과이서 현지교육...스마트 공항드론 등 선진 정책 소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중남미 지역에 항공 및 공항분야 정책 담당자와 공항건설 전문가를 파견해 페루·칠레·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지 교육을 실시한다.
 - 이번 교육은 중남미 민항위(LACAC*) 회원국들의 공항·항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세 번째 실시하는 현지 교육으로,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파라과이(아순시온)에서 실시된다.
 - * (LACAC, Latin Ame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) 아르헨티나, 브라질, 칠레, 볼리비아, 과테말라 등 총 22개 회원국으로 구성
- 국토교통부는 2001년부터 개도국 항공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항행시설 분야 기술전수를 위한 무상 초청교육을 실시해왔으며, 2006년부터는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와 한국국제협력단(KOICA)과 항공 분야 초청 교육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국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.
 - 중남미 지역에 항공분야 현지교육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지리적 거리 등으로 인하여, 우리나라 초청교육 참여율이 매우 낮아,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.

- '16년 9월, 제39차 ICAO 총회(캐나다, 몬트리올)에서 중남미 지역 현지교육 실시를 위한 내용의 부속서를 국토부와 중남미 민항위(LACAC)가 체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'17년부터 매년 2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.

- * ('01~'15 중남미 지역 교육 참여율) 22개국 91명으로 전체대비 6%(누계 교육생 1,448명) → '17년에는 26개국 190명 약 9.5%(누계 교육생 1,992명)로 '15년 대비 3.5%p 상승

- 올해에는 2개의 교육과정*이 LACAC 회원국인 파라과이, 콜롬비아에서 개최 될 예정이며,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·인천국제공항공사 및 민간 기업 등의 항공분야 정부 인사와 전문 인력이 교관으로서 참여할 예정이다.

- * ('18년 중남미 현지교육 계획) 공항 정책 및 공항건설 과정('18. 4. 17.~19., 파라과이), 공항서비스관리 과정('18. 7. 23.~27., 콜롬비아)

【우리 부-중남미 민항위(LACAC)간 현지교육 부속서 체결】

- (부속서 체결 배경) 중남미 지역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 추진하여 항공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LACAC회원국과의 항공외교 강화를 위해 중남미 지역 현지교육 추진
- (부속서 체결) 제39차 ICAO총회 시, 항공정책실장↔LACAC 의장 간 부속서 체결('16. 9. 30.)
 - * (역할분담) (국토부) 교육계획수립, 교관선발 및 파견 등 (LACAC) 교육시행 공고, 교육생 선발 등
- (최초 교육) 공항환경관리과정('17. 4. 15.~4. 21., 과테말라), (교육생 현황) 칠레, 멕시코 등 9개국 34명 참여, (2차 교육) 공항 및 항행정책과정(10. 24.~26., 페루), (교육생 현황) 아르헨티나, 에콰도르 등 9개국 21명



□ 이번 중남미 지역 교관파견 교육은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핵심 추진사업인 'No Country Left Behind'* 기초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- * NCLB(No Country Left Behind): ICAO 핵심 추진사업으로 국제민간항공분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의 ICAO 국제기준 및 정책 이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개발도상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등 협력 추진

- 또한, 이번 현지교육은 항공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중남미 국가와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한편,
- 내년에 개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이사국 선거('19. 10., 제40차 ICAO 총회)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7연임 또는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한 지지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은 “현재 우리 부는 중남미 해외 건설 신시장 진출 및 스마트시티·교통·수자원 기반 시설 분야의 파나마·페루·브라질 등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분야 역시 스마트공항 등 기반 시설 협력 사업을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 추진하는데 있어, 현지교육이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* (국토부 ODA 사업) 콜롬비아 보고타 엘도라도 신공항도시 마스터플랜('17년, 9.68억 원, 수행기관: 도화엔지니어링), (한국공항공사 중남미 협력사업) 콜롬비아 북동부 6개 공항 운영 컨설팅('10. 11. ~ '25. 10., 40억 원, 콜롬비아 항공청), 콜롬비아 까르타헤냐 공항운영사업(수주활동 중, 콜롬비아 항공청), 도미니카 출입국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('13. 11. ~ '17. 3., 1.5억 원, EDCF 타당성 조사), 에콰도르 3개 지방공항 운영사업(타당성 조사 중, 에콰도르 항공청)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개정보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박세필 서기관(☎ 044-201-435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